

## 한국인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김학량\*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정치성향과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 차이가 인터넷과 SNS등의 발달로 나타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 1,000개의 전화여론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한국국민의 32.5% 정도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 분석에서는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국민 모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의 국민은 기타성향의 국민보다 2.95배, 진보성향의 국민은 2.17배 더 많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20대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연령대보다 2.43배 이상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분석에서는 도시지역거주자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거주자보다 0.42배 만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대학원졸업자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보다 1.91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치참여, 댓글, 보수성향, 진보성향, 연령대, 성, 거주지, 학력

---

\*김학량 (E-mail : docwin20@naver.com)  
학위취득대학: The Ohio State University  
현직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부교수

논문접수일 : 2016년 4월 28일, 논문수정일 : 2016년 8월 16일, 게재확정일 : 2016년 8월 22일

# A Study of Koreans'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Focusing on Political Inclinations and Democratic Characteristics

Kim, Hak-ryang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n the one hand, Koreans' political orientation, age group, gender, residence, and level of education, and on the other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as registered through the internet comments that have appeared with development of internet tools such as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For this study, a telephone survey of Korean adults was conducted in 2015. The total sample of the survey was 1,000, proportionally extracted by gender, age, and region. Th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for hypothesis verification in this study wer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nd cross-tabulations.

The results show that only 32.5% of Korean people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internet comments. In the analysis of political orientation, people with either conservative or progressive tendencies both turn out to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Koreans with conservative tendencies are 2.95 times more likely to use internet comments, while people with liberal tendencies are 2.17 times more likely. By age group, only individuals in their 20s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2.43 times more likely than other age groups).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difference between gender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By residence, only urban residents showed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They are 0.42 times less likely than other area residents. In the analysis of academic background only the graduate school graduates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relationship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internet comments. They are 1.91 times more likely than high school or college graduates.

**[Key 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et comment, conservative, progressive, age group, gender, residence, level of education*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전제로 한다. 국민의 참여가 부족하면 소수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수의 정치인들의 견해는 대다수 국민의 욕구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선거이다. 그러나 선거는 국민의 욕구충족과 의사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한국의 선거는 2년에 한두 번 정도 실시되므로 꾸준히 한국국민(이하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국민은 고작 소수의 후보들 중에서 선택해야하기 때문에 선거에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sup>1)</sup> 셋째 1960년대 이후 한국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증폭되면서 투표율이 하락하고 있는데(서현진 2015, 123), 이 현상은 선거의 대의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 외의 정치참여방법인 시위나 이익단체 혹은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참여는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참여자에게 적지 않

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민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근래에 국민들이 쉬우면서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참여 방식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바로 인터넷뉴스나 SNS에 짧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댓글이다. 즉 댓글은 선거나 시위와 같이 정치가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참여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김동윤·홍하은 2015).

댓글은 자신을 드러냄이 없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익명성, 자신의 댓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있는 상호작용성,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PC나 스마트기기를 통해 고작 2-3줄의 짧은 글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편의성, 신문이나 TV등 기존의 오프라인 매체보다 빠르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현장성 혹은 신속성(최동성·최성은·최용준 2008),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성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가 등한시했던 정치성향별,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정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sup>2)</sup> 본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된 표본 1,000개의 전화 설문조사에 근거하며,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서

1) 한국에서는 당선인의 궐위, 당선무효, 사퇴 등으로 매년 두 번씩 재선 혹은 보궐선거가 실시되지만, 이것은 일부선거구에만 해당되며, 대부분의 유권자는 고작 1-2년에 한 번씩 선거에 참여한다.

2) 학력은 개인소득 및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인소득 및 직업은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술하면 다음과 같다. 댓글이 보편화 된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가? 보수성향 국민과 진보성향 국민 중 누가 정치적 댓글을 많이 남기는가? 20대-60대 이상 사이의 연령대 중에서 어느 연령대가 활발하게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가?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정치적 댓글을 많이 남기는가? 거주지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는 어떤 관계인가? 학력과 댓글을 통한 정치 참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 2.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의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 댓글의 품질, 영향력, 여론형성기능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왔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는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차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정치성향별,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로 어떤 부류의 국민들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지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들의 댓글을 통한 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주기별 변화 파악에 기여한다. 댓글을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는 더욱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주된 이유는 국민 개개인이 PC나 스마트기기의 사용에 더 능숙해짐에 따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빈번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기별로 국민의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장기적 추세의 변

화파악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속성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본 연구는 이런 추세파악의 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세 번째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이어서 매우 중요한 정치참여방법이지만 고작 1-2년에 한번 정도만 기회가 주어지고 소수의 후보들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하는 정치참여방법인 투표와 상시적이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간접적이거나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 번째 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의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한석 2013; Noh 2013; 김학량 2015b), 유권자 빅데이터의 중요한 한 부분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제기된 정치적 이슈에 유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댓글이다. 따라서 정치댓글에 관한 연구는 후보자의 유권자 접촉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II. 선행연구 논의 및 이론적 고찰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차이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댓글 뿐 만아니라 포괄적인 정치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난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서술하였다.

### 1. 전체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댓글이 국민의 정치참여를 촉진시켜왔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댓글은 신문이나 방송 등 오프라인이 여론을 주도되었던 시기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조차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김은이·정선영·문원기 2015, 176). 이 현상은 인터넷 사용시간과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 20-30대의 인터넷 뉴스보기와 SNS 사용 등 인터넷 접속시간은 1시간 이하가 31.8%, 1-4시간이 33.3%, 4시간이상인 21.6%로 1시간 이하가 51.0%이상, 1-4시간이 32.3%이하, 4시간이상인 8.5%이하인 40-50대보다 상당히 길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정치효능감과 관련이 있다. 국민은 정치인을 선출하거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을 많이 느낄수록 만족감과 책임감 때문에 정치참여를 한다(Verba & Nie 1972; 안형기·신순범 2006). 즉 정치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면 편리한 댓글을 통해서조차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댓글을 통해 정치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익명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댓글을 남김으로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 보다는 타인이 남긴 댓글을 통해 여론을 파악하려고하기 때문이다(정일권·김영석 2006; 최동성·최성은·최용준 2008, 351). 따라서 국민 중 어느 정도가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의

미가 있는 일이다. 이것은 댓글의 편의성, 신속성, 상호작용성, 다양성 등이 국민에게 정치참여의 동기를 부여하는 환경에서 정치효능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 2. 정치성향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보수성향의 국민과 진보성향의 국민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일반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 보수성향의 국민과 진보성향의 국민들 사이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

보수성향의 국민은 얼마나 쉽게 정치참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정치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 진보성향의 국민은 자신의 정치참여행위가 실제로 얼마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이영화·전승우 2015, 14). 이 주장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국민이 진보성향의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 즉 보수성향의 국민은 정치효능감을 적게 느껴도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반면 진보성향의 국민은 정치효능감을 많이 느낄 때에만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정치성향이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댓글 참여가 달라진다는 것은 ‘연령효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성향이 강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2000년 이후에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소위 '세대효과' 때문이다. 젊은 층인 20-30대는 대체적으로 진보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에서 소위 '386'으로 대변되는 현재 40대 중반-50대 중반의 국민들은 반드시 보수성향이 아니기 때문이다(김학량 2015a).

### 3. 연령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는 투표율을 통해 어느 정도 측정되어 왔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수록 투표율이 낮기 때문이다(송대수·양민석 2014). 실제로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국회의원 선거, 2012년 대통령 선거,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더 높았다.<sup>3)</sup> 이것은 연령이 낮을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투표이외의 정치참여에서 연령별 차이는 투표율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댓글이 활발하지 않았거나, 인터넷뉴스나 SNS 등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던 과거에 선거이외의 정치참여 수단 중에서 댓글과 가장 유사한 정치참여 수단이었던 언론기관에 정치관련 기사를 투고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20-30대가 40-50대보다 더 활발했다(박종민 1994, 174). 적어도 20-30대 중 일부는 활발한 정치행위를 한다고 해석

할 수 있기 때문에 20-30대가 40-50대나 60대 이상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더 활발하지 않다고 추론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20-30대의 인터넷 접속시간이 40-50대보다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도 높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외국의 경우 댓글 등을 통한 연령별 정치참여연구에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비서스와 스톨(Vissers & Stolle 2014)은 캐나다 국민의 경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20대의 대학생들이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하게끔 할뿐 아니라, 이미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더 촉진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페젤(Feezell 2016)은 미국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연령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 4. 성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성별 정치참여에 대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정치참여도가 높다는 주장이 많은 편이다. 조동성·나은경(2011, 276)은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에 관심이 더 많은 편이라고 주장했고, 이승훈·김상돈(2009, 46)은 댓글과 유사한 온라인 정치토론이나 정치시위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참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표율 측면에서 보면 최근의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낮은 편이 아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를 많이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선거인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투표율이 똑같이 57.2%였으며,

3) 한국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14년에 실시된 동시지방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20대 48.4%, 30대 47.5%, 40대 53.3%, 50대 63.2%, 60대 74.4%, 70대 이상 67.3%로 50-60대의 투표율은 20-30대보다 15-20% 정도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간행물 2014,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참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오히려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1.6% 높았다.<sup>4)</sup> 따라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남성과 여성 중 누가 참여를 많이 하는지, 이러한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지에 대해서는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 5. 거주지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거주지의 속성(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에 따른 정치참여에 대해 상반된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첫 번째 주장은 거주지에 따른 정치참여 정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승훈·김상돈(2009, 54)은 온라인 정치참여의 경우 거주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16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근거했다는 점에서 다소간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위 설문조사는 16-18세의 투표권이 없어 정치참여가 제한된 연령층을 포함하고 있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번째 주장은 거주지가 구성원들의 동질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른 정치참여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희조(2013)는 SNS 등을 사용하는 집단의 성향이 동질적일수록 상호간 정치소통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근거하면 거주자의 속성이 상대적으로 다

양한 도시지역보다 속성이 비슷한 농어촌 지역에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가 더 활발해야 한다.

## 6. 학력별 정치참여에 대한 연구

학력과 정치참여정도와의 관계는 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분야이며, 연구결과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Almond & Verba 1963). 박종민(1994, 174)은 댓글보다 더 적극적인 정치참여행위인 언론기관에 투고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도 학력이 높을수록 투고하는 비율이 높다고 주장했다. 댓글과 유사한 정치방법인 온라인 토론이나 온라인 시위도 학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훈·김상돈 2009, 46).

## III. 분석의 틀

### 1. 가설

본 연구는 연구문제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국민이 남기지 않는 국민보다 적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치적 댓글을 남기기보다는 타인의 댓글을 보고 여론을 파악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4)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간행물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참조

가설 2) 보수성향의 국민이 진보성향의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수성향의 국민은 정치참여의 편의성이 있을 때, 진보성향의 국민은 정치효능감을 느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댓글은 편의성이 있는 정치참여방법인 것이 확실한 반면, 정치효능감은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20대와 30대 국민은 40대 이후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투표행위와는 속성이 다른 댓글의 경우 젊은 층이 중장년층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젊은 층의 인터넷 접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4)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과거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정치참여에 관한 한 남성과 여성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5)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속성이 유사한 농어촌지역거주자가 속성이 다양한 도시지역거주자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활발히 한다고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가설 6) 학력이 높은 국민이 낮은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설을 세웠다.

## 2. 검증자료 및 분석방법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2015년 8월 27일에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을 통해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전화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이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교차분석이다. 먼저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검증한 후 교차분석을 통해 로지스틱분석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려고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연령을 20대와 그 외의 연령대로 나눈 뒤 20대의 성향을 분석하는데, 이러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국민

들의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교차분석을 통해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에 위해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화 한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여부’이다. 종속변수에 대해서 “남긴다.”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전혀 남기지 않는다.”의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했다.

독립변수에는 응답자들의 정치성향, 연령대, 성별, 거주지, 학력이 포함되었다. 정치성향의 경우도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가 보수성향이든 1, 그 외의 성향이든 0을 부여했으며, 진보성향과 중도성향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연령대의 경우 설문 응답자가 19세를 포함한 20대이면 1, 그 외의 연령대이면 0을 부여했으며, 그 외의 연령대인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대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성별은 응답자가 남성이면 1, 여성이면 0을 부여했다. 거주지의 경우 농어촌지역거주자이면 1, 기타지역거주자이면 0을 부여했으며, 도시지역과 도농복합지역거주자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학력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이면 1, 기타학력이면 0을 부여했으며, 대학교졸업과 대학원졸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부여했다.

#### IV. 분석의 결과 및 해석

<표 1>은 19세 이상 한국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주 남긴다.”가 7.0%이고, “가끔 남긴다.”가 25.5%이며, 합인

“남긴다.”는 32.5%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가 67.5%이다. 즉 정치적 댓글을 “자주 남긴다.”와 “가끔 남긴다.”를 합한 수치가 32.5%로서 “전혀 남기지 않는다.”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표 1>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70 (7.0%)	255 (25.5%)	325 (32.5%)	675 (67.5%)

<표 1>은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국민이 댓글을 남기지 않는 국민보다 적을 것이다.”라는 가설1)을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댓글을 자주 남기거나 가끔 남기거나에 관계없이 댓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 즉 댓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행위는 32.5%이다. 67.5%는 타인의 댓글을 보기만 하거나, 댓글에 관심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댓글 달기는 기존의 정치참여 방법인 투표나 시위 등보다 타인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상호작용성,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신속성 혹은 현장성, 시민단체나 정당가입 등을 통해서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편의성, 다양한 이슈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방법이지만, 정치효능감에 있어서는 아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적다고 해석된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댓글을 남김으로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기 보다는 타인이 남긴 댓글을 보고 여론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2>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여부가 종속 변수이고 정치성향, 연령대, 성별, 거주지역, 학력이 독립변수인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이다. Nagelkerke R<sup>2</sup>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13.1%이다. 분석결과 독립변수들 중에서 보수성향, 진보성향, 20대, 도시지역거주자, 대학원졸업자만 종속변수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sup>5)</sup>

독립변수	Exp(β)	P
보수성향	2.957	0.000**
진보성향	2.170	0.003**
중도성향	1.262	0.356
20대	2.430	0.000**
30대	1.456	0.088
50대	0.655	0.073
60대이상	0.767	0.255
성별	1.000	1.000
도시거주	0.421	0.000**
농어촌거주	0.792	0.346
고졸	0.931	0.668
대학원졸	1.917	0.013*
N=1,000		
Nagelkerke R <sup>2</sup> =0.132		
* p<0.05    ** p<0.01		

정치성향에서는 보수성향이 진보성향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국민은 기타성향의 국민보다 2.95배, 진보성향의 국민은 2.17배 더 많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도성향의

5)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한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도출되는 Exp(β)값은 1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 영향을 미치고,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는 20대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는 기타 연령대보다 2.43배 이상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외의 연령대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또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의 인과관계에서는 도시지역거주자만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거주자가 기타지역거주자보다 0.42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거주자는 그 외의 지역거주자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농어촌지역거주자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의 관계에서는 대학원졸업자만이 유의미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업자는 기타 학력 출신자보다 1.9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졸업자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보수, 진보, 중도 성향의 국민들이 각각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보여주고 있다. 보수성향 국민의 경우 “자주 남긴다.” 10.4%, “가끔 남긴다.” 29.4%이며, 합인 ‘남긴다’는 39.8%이다. 한편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0.2%이다. 진보성향 국민은 “자주 남긴다.” 3.2%, “가끔 남긴다.” 22.8%이며, 합인 “남긴다.”는 26.0%

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70.4%이다. 중도성향은 “자주 남긴다.” 8.6%, “가끔 남긴다.” 28.5%이며, 합인 “남긴다.”는 37.1%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2.9%이다. 자신의 정치성향을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국민은 “자주 남긴다.”가 4.6%, “가끔 남긴다.” 17.2%이며, 합인 “남긴다.”는 21.8%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78.1%이다.

즉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보수성향이 가장 적극적이며, 그 다음이 중도성향, 세 번째가 진보성향, 그리고 자신의 정치성향을 밝히지 못한 국민 순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는 행위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p=0.000$ ).

<표 3>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 참여 여부(정치성향별)<sup>6)</sup>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보수	35 (10.4%)	99 (29.4%)	134 (39.8%)	203 (60.2%)
중도	19 (8.6%)	63 (28.5%)	82 (37.1%)	139 (62.9%)
진보	9 (3.2%)	66 (22.8%)	75 (26.0%)	214 (74.0%)
잘 모름	7 (4.6%)	26 (17.2%)	33 (21.8%)	118 (78.1%)

$X^2=39.8,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3>의

6)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제시 여부를 “남긴다.”와 “전혀 남기지 않는다.” 두 개로 나누는 이분형을 사용하였다. 한편 교차분석에서는 “남긴다.”를 “자주 남긴다.”와 “가끔 남긴다.”로 더 세분화시켜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세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이유는 종속변수의 초점은 댓글참여여부이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남긴다.”와 “전혀 남기지 않는다.”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변수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교차분석에서는 “남긴다.”를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로 분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차분석을 종합하면 “보수성향 국민이 진보성향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가설2)를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 의하면 보수성향의 국민은 편의성이 있을 때 정치참여를 하고, 진보성향의 국민은 정치효능감을 느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있어서도 유사한 이유로 인해 보수성향이 강한 국민일수록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sup>7)</sup>

<표 4>는 한국의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연령대별로 보여주고 있다. 19세/20대는 “자주 남긴다.” 7.3%, “가끔 남긴다.”는 40.1%이며, 합인 “남긴다.”는 47.4%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52.6%이다. 한편 30대는 “자주 남긴다.” 10.1%, “가끔 남긴다.” 26.5%이며, 합인 “남긴다.”는 37.6%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3.4%이다. 40대의 경우 “자주 남긴다.” 4.6%, “가끔 남긴다.” 27.3%이며, 합인 “남긴다.”는 31.9%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8.1%이다. 그리고 50대는 “자주 남긴다.” 3.5%, “가끔 남긴다.” 18.7%이며, 합인 “남긴다.”는 22.2%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77.8%이다. 60대 이상은 “자주 남긴다.” 9.5%, “가끔 남긴다.” 16.8%이며, 합인 “남긴다.”는 26.3%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7.7%이다.

즉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을 남기는 비율을 기준으로 볼 때 20대, 30대,

7)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 중도성향의 국민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교차분석을 종합한 해석에서 제외되었다.

60대이상, 40대, 50대의 순이다. 즉 60대이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이상이 40대와 50대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하는 이유는 퇴직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자주 남긴다.”는 19세/20대보다 3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는 행위에서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p=0.000$ ).

<표 4>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연령별)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19세/20대	13 (7.3%)	71 (40.1%)	84 (47.4%)	93 (52.6%)
30대	19 (10.1%)	20 (26.5%)	39 (37.6%)	120 (63.4%)
40대	10 (4.6%)	59 (27.3%)	69 (31.9%)	147 (68.1%)
50대	7 (3.5%)	37 (18.7%)	44 (22.2%)	154 (77.8%)
60대 이상	21 (9.5%)	37 (16.8%)	58 (26.3%)	162 (67.7%)

$X^2=45.7,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4>의 교차분석을 종합하면 “20대와 30대 국민이 40대 이후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가설3)은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차분석에서 20대가 정치적 댓글을 “자주 남긴다.”와 “가끔 남긴다.”를 합한 수치에서 연령대 중 가장 높고,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20대와 정치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나오기 때문에 20대가 기타 연령층에 비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한다는 가설은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30대 이후 연령대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 가설3)의 일부는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젊은 층의 인터넷 접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컴퓨터와 휴대폰사용에 능숙하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주장은 20대에게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한국의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은 “자주 남긴다.” 7.7%, “가끔 남긴다.” 26.0%이며, 합인 “남긴다.”는 33.7%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6.3%이다. 한편 여성은 “자주 남긴다.” 6.5%, “가끔 남긴다.” 25.0%이며, 합은 31.5%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8.5%이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는 행위에서 성별로 차이가 없음이 발견되었다( $p=0.693$ ).

<표 5>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성별)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남성	38 (7.7%)	129 (26.0%)	167 (33.7%)	329 (66.3%)
여성	33 (6.5%)	126 (25.0%)	159 (31.5%)	346 (68.5%)

$X^2=0.75,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5>의 교차분석을 종합하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가설4)는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일반적인 정치참여와 마찬가지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6>는 한국의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 지를 거주지별로 보여주고 있다. 도시지역거주자는 “자주 남긴다.” 6.4%, “가끔 남긴다.” 21.2%이며, 합인 “남긴다.”는 27.6%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72.4%이다. 도농복합지역거주자는 “자주 남긴다.” 5.8%, “가끔 남긴다.” 41.4%이며, 합인 “남긴다.”는 47.2%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52.8%이다. 농어촌지역거주자는 “자주 남긴다.” 12.7%, “가끔 남긴다.” 24.6%이며, 합인 “남긴다.”는 37.3%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2.7%이다.

“자주 남긴다.”만 보면 농어촌지역, 도농복합지역, 도시지역 거주자의 순이다. 즉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여 사는 농어촌 지역에서 댓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주 남긴다.”와 “가끔 남긴다.”를 합친 “남긴다.”를 기준으로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지역, 도시지역 거주자의 순이다. “남긴다.”를 기준으로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농어촌지역 거주자보다 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어촌지역에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노인들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결과는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는 행위에서 거주지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p=0.000$ ).

<표 6>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거주지역)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도시 지역	43 (6.4%)	143 (21.2%)	186 (27.6%)	490 (72.4%)
도농 복합 지역	11 (5.8%)	79 (41.4%)	90 (47.2%)	101 (52.8%)
농어 촌 지역	17 (12.7%)	33 (24.6%)	50 (37.3%)	84 (62.7%)

$X^2=39.82,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6>의 교차분석을 종합하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가설5)는 부분적으로만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차분석에

서는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댓글 등을 통한 정치참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에서는 오직 도시지역 거주자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나왔기 때문이다. 즉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도시지역 거주자들은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표 7>는 한국 성인들이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얼마나 자주 댓글을 남기는지를 학력별로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졸업자는 “자주 남긴다.” 10.0%, “가끔 남긴다.” 18.7%이며, 합인 “남긴다.”는 28.7%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71.3%이다. 대학교졸업자는 “자주 남긴다.” 5.5%, “가끔 남긴다.” 28.0%이며, 합인 “남긴다.”는 33.5%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66.5%이다. 대학원졸업자는 “자주 남긴다.” 2.6%, “가끔 남긴다.” 41.6%이며, 합인 “자주 남긴다.”는 44.2%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는 55.8%이다. 즉 “남긴다”는 학력이 높을수록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에 의한 카이제곱 검증도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정치적 댓글 남기는 행위에서 학력별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p=0.000$ ). 단 “자주 남긴다.”는 학력이 낮을수록 더 높아, “남긴다.”와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sup>8)</sup>

8) 대학원졸업자의 경우 “자주 남긴다.”라고 응답한 표본수가 고작 2개이므로 성향을 언급하기에 충분치 않다.

<표 7> 인터넷 뉴스나 SNS 등에 게재된 정치문제에 대해 댓글참여 여부(학력)

	남긴다			전혀 남기지 않는다
	자주 남긴다	가끔 남긴다	계	
고졸	38 (10.0%)	71 (18.7%)	109 (28.7%)	271 (71.3%)
대졸	30 (5.5%)	152 (28.0%)	182 (33.5%)	361 (66.5%)
대학원졸	2 (2.6%)	32 (41.6%)	34 (44.2%)	43 (55.8%)

$X^2=27.19, P<0.05$

<표 2>의 로지스틱회귀분석과 <표 7>의 교차분석을 종합해 보면 “학력이 높은 국민이 낮은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욱 적극적일 것이다.”라는 가설6)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교차분석결과 대학원졸업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도 대학원졸업자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의 관계가 유의미하며, 대학원졸업자가 그 외의 학력보다 1.91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졸업자의 경우 교차분석에서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로지스틱회귀분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정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는 정치성향과 연령대별, 성별, 거주지별, 학력별 차이가 인터넷과 SNS 등의 발달로 근래에 나타난 정치참여 수단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표본 1,000개의 전화여론조사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설 검증을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국민의 32.5% 정도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컴퓨터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고, 선거, 시위, 신문기고 등과 같은 정치참여방법보다 편리한 정치참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댓글의 정치효능감이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치성향은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성향 국민이 진보성향 국민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성향의 국민은 그 외의 국민보다 2.95배, 진보성향의 국민은 2.17배 더 많이 댓글을 통해 정치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듯이 편의성이 있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 보수성향의 국민이 정치효능감을 느낄 때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 진보성향의 국민보다 더 적극적으로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대별 분석에서는 20대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회귀분석결과 20대는 기타 연령대보다 2.43배 이상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주장되

였듯이 20대는 기타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접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능숙하게 다루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의 연령대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 분석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 분석에서는 도시지역거주자만이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거주자는 기타지역거주자보다 0.42배 만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거주자들보다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적게 한다는 의미인데, 선행연구가 주장했듯이 도시지역거주자들은 속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분석된다. 한편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어촌지역 거주자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 분석에서는 대학원졸업자만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원졸업자는 고등학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보다 1.91배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연구가 주장했듯이 학력이 높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다. 고등학교졸업자와 대학교졸업자는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두 가지의 한계점이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는 선행연구가 주장했던 이

론을 검증은 했지만 그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이것은 정치성향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 각각과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 관계에 대한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설문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 둘째는 본 연구 독립변수들인 정치성향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종속변수인 댓글을 통한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정도가 13.1%(Nagelkerke  $R^2=0.131$ )로 낮은 편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한 기타 변수 발견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고한석. 2013. 『빅데이터, 승리의 과학』. 서울: 이지스퍼블리싱.
- 금희조. 2013. “SNS활용과 정치적 소통의 양극화: 미국 퓨 리서치 데이터 분석.”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pp. 272-293.
- 김동윤·홍하은. 2015. “정치참여 수단으로서 댓글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한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2권 1호, pp. 51-86.
- 김은이·정선영·문원기. 2015. “SNS, 사회자본 네트워크 유형, 그리고 정치참여: SNS(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9집 1호, pp. 175-200.
- 김학량. 2015a. “세대균열과 출신지별 지역주의가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비교연구: 2014년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 3호, pp. 77-95.
- . 2015b. “후보자의 유권자 정보수요에 대한 연구: 2014년 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9집, pp. 3-24.
- 박종민. 1994. “한국에서 비선거적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pp. 163-182.
- 서현진. 2015. “선거와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 유권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민교육연구』 제 47권 1호, pp. 121-143.
- 송태수·양민석. 2015. “여성정치참여와 여성정치교 활성화 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 30집 4호, pp. 235-257.
- 안형기·신범순. 2006. “정치참여 결정요인으로서의 인지적 효능감: 네티즌의 투표행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0권 제1호, pp. 27-49.
- 이승훈·김상돈. 2009. “인터넷과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탐색적 논의.”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12권 제1호, pp. 31-58.
- 이영화·전승우. 2015. “투표 참여 독려 광고가 유권자의 정치효능감과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른 대학생들의 투표참여 행위를 중심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제38호, pp. 5-39.
- 이준기·한미애. 2012. “개인의 정치성향이 뉴스 댓글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제 17권 제1호, pp. 173-189.
- 정일권·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여론동향 지각과 제 3자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제4호, pp. 302-327.
- 조동성·나은경. 2011. “매체의 이용 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권 1호, pp. 242-286.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 투표율 분석.”

[http://elecinfo.nec.go.kr/neweps/4/1/ebook.do?order\\_sort=desc&order=reg\\_ymd, 2016/05/04](http://elecinfo.nec.go.kr/neweps/4/1/ebook.do?order_sort=desc&order=reg_ymd,2016/05/04)

최동성·최성은·최용준. 2008. “인터넷 포털뉴스 댓글의 여론형성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8호, pp. 311-358.

## Reference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eezell, Jessica. 2016. "Predicting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mportance of Selection Bias and Selective Exposure in the Online Setting."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9(3): 495-509.
- Noh, Kyoo-Sung, 2013, "An Exploratory Study on Big-data Based Election Campaign Strategy Model in South Korea." *Journal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1 (12): 113-120.
- Verba, Sidney and Norman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Vissers, Sara and Dietlind Stolle. 2014. "The Internet and New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Online versus Offline Participa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Society* 17 (8): 937-955.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Cho Sung-Dong and Na Eun-Kyung. 2011. "The Effects of Media Genre and Func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Considering the Role of Political Psychology and Social Capital Variabl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5 (1): 242-286.
- Choi Dong Sung, Choi Sung Eun and Choi Yong Yun. 2008. "How Do Comments Affect Forming Public Opinion in Internet Portal News?"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Studies* 8: 311-358.
- Jeong Ir-Kwon and Kim Young-Seok. 2006. "Impact of 'Datgeul' of Online Media on Public Opinion: An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and Third-Party Effects."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50 (4): 302-327.
- Kim Dong Yoon and Ha Eun Hong. 2015. "The Limited Meanings and Roles of the Reply as an Instrument of Political Participation."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2 (1): 51-86.
- Kim Hak Ryang. 2015a.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fluence of Regionalism and the Effect of Age on the Voting Behavior of the Electorate in the June 4 Mayoral Election." *Modern Society and Administration* 25 (3): 77-95.
- . 2015b. "A Study on Candidates' Demand for Voter Information in the 2014 Local Election."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9: 3-24.
- Korea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14. "Analysis of Turnout of the 6<sup>th</sup> Local Election." NEC Homepage (<http://www.nec.go.kr>).
- Lee Younghwa and Chun Seungwoo. 2015. "The Impact of Vote Campaigns on Voters' Political Efficacy and Vote Particip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Young Voters' Political Ideology."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Studies* 38: 5-39.
- Lee Zoonky and Han Mi Ae. 2012. "The Impact of Individual Political Tendencies on the Perception of the Reliability and Social Impact of Online Newspaper Comments."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7 (1): 173-189.
- Park Chong-Min. 1994. "Nonelectoral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28 (1): 163-182.

Seo Hyun Jin. 2015. "Searching for Good Education of Future Voters with Regard to Elec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7 (1): 121-143.

Song Tae-Soo and Yang Min-Suk. 2015.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of Political Education for Women."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 (4): 235-257.